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조수미¹, 신형덕^{2*}

¹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²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Effects of Cultural Facilities and City Parks on the Regional Suicide Rates in Korea

Soo-Mi Cho¹, Hyung-Deok Shin^{2*}

¹Department of Culture and Art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²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Hongi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문화복지환경이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화복지환경을 문화 시설과 도시공원으로 구분하였고, 문화시설로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시설의 개수를, 도시공원으로서 도시공원면적을 수집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143개의 시, 구를 중심으로 2011년 통계청 자료 등 4개 기관의 자료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연시설과 도시공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자살률을 감소시키며 전시시설과 도서관시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공연시설과 도시공원과 같은 활동적인 요소가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인 자살률을 낮추는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문화복지환경의 가치 및 효과를 재조명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ultural facilities and city parts on the regional suicide rates in Korea. Data of theaters, exhibition facilities, libraries and city parts was collected in 143 local areas governments. The number of theaters and the size of city par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creasing the regional suicide rates in the areas, and the number of exhibition facilities had partial impact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dynamic components of a culture and arts environments may work more effectively to relieve depression and stress and decrease the suicide rat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ultural welfare environments can be found to solve the problem of the high suicide rates in Korea.

Key Words : Suicide Rates; Cultural Welfare Environments; Cultural Facilities; City Parks

1. 서론

우리나라는 2011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31.7명으로 OECD 국가들 중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세계 주요 나라의 자살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자살로 인한 연간 사망자는 15,906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2%로서 하루 평균 33분에 1명이 자살로 사망하였고 사망 원인 중 4위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12).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자살과 관련된 연구로서 먼저 성별과 연령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1-6]. 이는 늘어나는 고령화 문제가 대두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 스트레스와 우울[7-9]연구가 뒤를 이룬다. 스트레스와 우울 같은 정신적 문제는 자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밖에 사회적지지[10,11] 및 가족관계 [12,4], 경제적 원인[13]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논문은 2014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Hyung-Deok Shin(Hongik Univ.)

Tel: +82-10-3742-4700 email: shinhd@hongik.ac.kr

Received May 14, 2014

Revised (1st June 27, 2014, 2nd July 10, 2014)

Accepted August 7, 2014

그러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문화복지환경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제한적이다. 문화복지환경은 문화예술과 체육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삶의 휴식처로 이용되는 문화복지향유의 장이다.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을 포함한 사회와 세계관을 이해하고 표현하며 삶의 대한 통찰력을 얻는 공간이며 정신적 활동을 표현하는 장소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12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문화예술 경험자는 비 경험자에 비해 행복, 삶의 만족도, 여가만족도, 자아 존중감, 대인적 의사소통 능력, 건강, 창의성은 높고 우울증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4].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순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이 결과는 입증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향유가 가지는 사회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에 관해 심각성을 검토하고 문화예술의 가치 및 문화시설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그 중요성을 도출한다. 다음 3장과 4장에서는 지역별 문화시설의 수와 도시공원의 면적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결론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본론

2.1 우리나라의 자살률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은 이미 수년 전부터 높은 상태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5]. 2012년 기준으로 OECD회원국 평균치인 12.9명 보다 2.5배나 높다. 한국에 이어 일본(21.2), 스웨덴(16.9), 프랑스(16.2)가 등의 순으로 자살률이 높았으나 우리나라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OECD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5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감소했으나 유독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보여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 남성 자살률은 2005년 45.1명에서 2010년 29.6명으로, 여성 자살률은 18.6명에서 21.4명으로 증가한 반면, OECD회원국 평균치는 같은 기간에 남성이 21.6명에서 20.7명으로, 여성이 6.2명에서 5.8명으로 줄어 들었다(통계청, 2012). 지난 1982년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가 6.8명으로 OECD 국가들 중에 하위권이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24.7명으로 OECD 자살률 1위를 차지한 이후로 2012년까지

지 무려 8년째 1위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산업화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선진화의 부작용으로서 파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화 이후 과도한 업무와 과열 경쟁으로 인한 성공지상주의 등이 높은 자살률을 가져온 것이다.

2.2 문화예술의 효과

문화예술의 효과는 개인적 효과와 사회적 효과로 구분되며 사회적 효과는 다시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효과로 구분된다[16,17]. 먼저 문화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로서 스트레스와 우울, 긴장을 감소시키고 특히 음악은 심산부의 혈압을 감소시키며 수술 환자의 통증 감소에 기여한다. 둘째로 문화가 교육에 미치는 효과는 자부심과 자신감 향상,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기술 향상, 창의성 향상, 공간적 인식능력 향상을 포함한다. 셋째로 문화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는 문화는 타인과의 협동 및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기여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준다. 마지막으로 문화가 범죄예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청소년 범죄예방 예술 프로그램이 도입된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범죄율이 약 5.2%로 감소하는 것이 발견되었다[17].

문화예술이 사회 문제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로서 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과 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명주, 김갑숙은 청소년은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를 실시하여 우울증과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조용란, 이인수는 노인교실에서의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무기력감과 절망감을 해소시키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30,3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볼 때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우울증 및 궁극적으로는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복지환경, 즉 각종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이 궁극적으로 자살률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였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문화복지환경으로서의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3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의미하고,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시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2.4 도시공원

주 5일 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려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도시공원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17]. 도시공원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경관의 보호와 국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으로 정의된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법률」의 제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의 제15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서 도시공원을 그 기능 및 주제에 의하여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분류하며, 생활권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으로 세분된다[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문화시설과 도시공원이 지역 주민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시설, 그리고 도시공원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기로 한다.

3. 가설

3.1 공연시설과 자살률

공연시설에서는 연극, 음악, 무용 등 예술가와 무대전문가, 관객의 호응으로 구성되는 종합예술이 무대에 오른다. 이러한 공연예술은 다수의 관객과 직접 접촉하는 현장성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공연예술을 시연하는 공연시설은 다른 문화기반시설에 비해 일반대중의 감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며 강하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공연예술은 시, 인형극, 음악, 조각, 그림, 춤, 노래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치료기능도 가진다[20]. 또한 공연시설은 국민 정서 함양, 창의력 개발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체적 성격을 갖고 있다[21]. 이처럼 공연시설이 가진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은 지역주

민의 정서적 측면에 영향을 미쳐서 자살률을 낮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공연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3.2 전시시설과 자살률

미술관 관람객은 전시물을 감상하는 가운데 미술작품이 가진 예술적 의미를 파악하고 창의적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얻게 된다[22]. 박물관에 방문한 관람객은 역사 속에서의 현재의 의미를 찾고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처럼 미술관과 박물관 등 전시시설은 일반 대중의 문화 및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공연시설과 마찬가지로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2. 전시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3.3 도서관시설과 자살률

도서관은 자료를 통해 자기 학습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능력을 배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3]. 즉 도서관은 이용자의 개인적인 지적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 집단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적, 문화적 역할을 하는 도서관시설은 공연시설이나 전시시설과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을 위한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3. 도서관시설이 많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3.4 도시공원면적과 자살률

체육공원, 근린공원 등으로 불리는 도시공원은 이용자들에게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적은 경제적 부담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24]. 이렇듯 도시공원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여가 및 체육활동의 참여 기회를 늘려 줌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더 나아가 도시공원은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치유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며 현대인의 심신건강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여가공간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도시공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유적 기능과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4. 도시공원면적이 넓은 지역은 자살률이 낮을 것이다.

4.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통계청과 지방재정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살률, 지방세부담률 등 통계 자료를 수집하였고 문화시설 자료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2011)을, 도시공원 면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143개의 시, 구로 한정하여 2011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를 이용하여 변수의 기초통계량과 상관계수를 구하였으며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4.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자살률로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을 이용하였다. 첫 번째 독립변수는 공연시설로서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의 수를 합산하였고, 두 번째 독립변수는 전시시설로서 미술관과 박물관의 수를 합산하였으며, 세 번째 독립변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수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선정하였다(Table 5 참조).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독립변수는 도시공원면적으로서 제곱킬로미터의 단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가 고려한 통제변수는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가정환경적 범주의 변수들과 흡연률을 포함하였다. 첫 번째 통제변수는 경제적 변수로서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을 사용하였다. 지방세 부담액의 산출방식은 (보통세 + 목적세)/ 주민등록인구수 * 100으로서, 1인당 GDP수준과 경제성장률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를 고려하여 포함시켰다 [25]. 두 번째 통제변수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EQ-5D지표

로서 5개 건강영역(운동능력, 자기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그리고 불안/우울 등)을 나타낸 지표이다. EQ-5D 지표는 죽음을 0으로 완전한 건강상태를 1로 정의하며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 중의 하나이다[26]. 세 번째 통제변수인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평소 본인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1.매우 좋음, 2.좋음, 3.보통, 4.나쁨, 5.매우 나쁨 의 다섯가지 질문 중 1.매우 좋음과 2.좋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로 측정했다. 이는 성인의 사망률, 건강관리 유용성, 식사 섭취의 질, 노화과정 및 신체적 기능을 예측하는 유용한 지표라고 알려져 있다[27]. 네 번째 통제변수는 가정환경의 여건을 나타내는 평균가구원수이다. 사회적 관계 중에서도 가족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살 충동에 영향을 미치며[12] 1인 가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과 우울이 자살과 연관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28]를 고려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마지막 통제변수는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스트레스와 관계성이 깊은 흡연율이다. 흡연량이 따라 스트레스와 우울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29]를 고려하여 통제변수에 포함시켰다.

4.3 분석결과

Table 1은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 143개 지역의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은 평균 32.73명으로 나타났다.

[Table 1] Basic Statistics

	Min	Max	Mean	S.D.
The percentage of suicide of people out of 100,000	15.40	59.40	32.73	8.52
The sharing of costs for local taxes per head of population	74.00	1,000.00	320.51	198.93
The index of EQ_5D	.90	1.00	.95	.02
The recognition rate of subjective health	35.90	66.10	46.62	6.09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2.20	3.00	2.66	.19
The smoking rate	16.50	32.20	24.20	2.63
Cultural facility	0	90	7.37	9.36
Exhibition facility	0	64	4.21	7.19
Library facility	1	21	4.21	2.96
The area of city park	0	31.32	22.36	31.71

(1,000 won, km²)

Table 2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이용되는 주요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몇몇 변수들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어 다중공선성 체크 결과 모든 VIF값이 10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로그 값을 취하였다.

[Table 2] Correlation Table

	1	2	3	4	5	6	7	8	9	10
1	1									
2	.14	1								
3	-.36**	.06	1							
4	.06	-.01	.19*	1						
5	.56**	.042	.32**	-.10	1					
6	.33**	.15	-.07	-.25**	-.03	1				
7	-.25**	.15	.19*	.06	.10	-.06	1			
8	-.051	.32**	.05	.03	-.04	.05	.63**	1		
9	-.134	.34**	.15	.02	.20*	.01	.31**	.50**	1	
10	-.20*	.45**	.18*	.09	.23**	-.02	.20*	.22**	.49**	1

+p<0.1, * p<0.05, ** p<0.01

1. The percentage of suicide of people out of 100,000
2. The sharing of costs for local taxes per head of population
3. The index of EQ_5D
4. The recognition rate of subjective health
5.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6. The smoking rate
7. Cultural facility
8. Exhibition facility
9. Library facility
10. The area of city park

Table 3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 1, 2, 3, 4는 모델 1, 2, 3, 4에서 각각 검증되었으며 그 결과 가설 1, 2, 4는 지지되었고 가설 3은 기각되었다. 즉 공연시설과 전시시설, 그리고 도시공원면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해당 지역의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의성은 도서관시설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변수가 포함된 모델 5에서 가설 2는 그 유의성이 상실되어 전시시설의 유의성은 다소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연시설과 도시공원면적이 가장 견고하게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계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면 선행연구의 결과를 대체로 확인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담률과 흡연률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고 삶의 질이 낮고 가구당 가족 수가 적을수록 자살률이 높았다. 주관적 건강인지율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본인이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았다.

[Table 3] Regression Results

	Model 0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Model 5
Cons	149.27**	130.43**	144.74**	144.79**	133.52**	121.73**
tant	(29.97)	(29.08)	(29.72)	(20.29)	(29.85)	(29.52)
Control variable						
1	1.67* (.81)	2.11** (.78)	2.20** (.84)	1.96** (.82)	1.10 (.83)	2.72** (.90)
2	-110.55** (33.47)	-88.23** (32.54)	-107.45** (33.14)	-107.95** (33.56)	-91.97** (33.50)	-84.80** (32.66)
3	.20* (.09)	.20* (.09)	.20* (.09)	.20* (.09)	.21* (.09)	.21* (.09)
4	-20.78** (2.97)	-21.43** (2.85)	-21.14** (2.95)	-20.30** (3.01)	-19.23** (3.07)	-20.48** (2.93)
5	1.04** (.21)	.98** (.20)	1.05** (.21)	1.04** (.21)	.98** (.40)	.96** (.20)
Independent variable						
6		-.21** (.06)				-.21** (.07)
7			-.16* (.08)			.01 (.10)
8				-.20 (.19)		.12 (.22)
9					-.27* (.40)	-.24+ (.13)
N	143	143	143	143	143	143
R ²	.454	.502	.466	.454	.470	.505
F	24.64**	24.81**	21.98**	20.71**	21.97**	17.07**

+p<0.1, * p<0.05, ** p<0.01

1. The sharing of costs for local taxes per head of population
2. The index of EQ_5D
3. The recognition rate of subjective health
4. The average number of people per household
5. The smoking rate
6. Cultural facility
7. Exhibition facility
8. Library facility
9. The area of city park

5. 결론

자살률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그 해결을 위해 자살을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문제, 혹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만으로 인식한다면 그 해결책 역시 노인복지나 경제적 해결책에만 집중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기반으로 자살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문화예술환경의 가치와 효과에 주목하고, 143개 시, 구별 2011년 문화시설 및 도시공원의 수가 지역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가 발견한 점과 그에 대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 중 공연시설의 수는 자살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문화시설 중 전시시설의 수는 자살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공연시설이나 도시공원보다는 그 영향력이 안정

적이지는 않았다. 셋째, 문화시설 중 도서관의 수는 자살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넷째, 도시공원면적은 자살률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대해 확인하는 동시에[14, 17], 개인적 차원에서 자살의 원인이 되는 요인[5, 6]들을 통제된 가운데에 사회적인 문화복지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의 가능성을 제시하려 하였다. 또한 문화복지환경을 공연, 전시, 도서, 공원 시설로 구분하여 각 영역이 자살률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시시설이나 도서관에 비해 공연시설에서는 예술가와 다수의 관객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서 국민의 우울 및 스트레스 해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것은 국민들이 야외 활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피곤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역할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시시설과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정적인 치유기능보다는 역동적인 치유기능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공연시설, 도서관, 전시시설의 개수와 도시공원의 면적 등 하드웨어적인 수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시설의 이용률이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전시시설은 공연시설이나 도시공원에 비해 낮은 영향력을 보여 주었지만 만약 이용률의 측정치로 분석한다면 전시시설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발견되는 등 다른 결과가 발견될 수도 있다. 둘째,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연령별로 자살의 원인이 상이한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연령별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행하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노인의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노인 복지적 측면의 의료시설, 요양시설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부한 자료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S. K. Kahng, "Does Depression Predict Suicide?: Gender and Ag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1, No.2, pp. 67-100, 2010.

- [2] H. K. Lee, M. S. Sohn, M. K. Choi,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of the Aged in Korea".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2, No.12, pp. 672-68, 2012.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2.12.12.672>
- [3] S. I. Kyun, K. M. Seok, "Effects of the Elderly's Abuse Experiences on Their Suicidal Ideation & Mediation Effects of Stress,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1, No.1, pp. 127-157, 2011.
- [4] I. Choi, Y. S. Kim, K. H. Suh, "The Psycho-social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of the Elderly".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25, pp. 33-65, 2009.
- [5] H. G. Lee, "Determinants of Suicidal Ideation among Korean Youth". *The Korean Society of Stress Medicine*, Vol.20, No.3, pp. 139-148, 2012.
- [6] B. K. Shin, S. J. Lee, "Relations among Adolescents' Domestic Violence, School Violence, Depression-Anxiety, and Suicide". *Korean Culture Research*, Vol.44, No.8, pp. 281-318, 2012.
- [7] J. Y. Park, Y. O. Lim, H. S. Yoon, "Suicidal Impulse Caused by Stress in Korea: Focusing on mediational Effects of Existent Spirituality, Family Support,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1, No.4, pp. 81-105, 2010.
- [8] H. N. Suh, "A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ocusing on the Effect of Stress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Vol.30, No.3, pp. 629-646, 2011.
- [9] M. C. Wang, O. R. Lightsey, T. Pietruszka, A. C. Uruk, A. G. Wells, "Purpose in Life and Reasons for Living as Mediator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2, No.3, pp. 195-204, 2007.
DOI: <http://dx.doi.org/10.1080/17439760701228920>
- [10] J. Y. Park, "The Effect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n Adolescent Suicid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16, No.10, pp. 249-272, 2009.
- [11] T. W. Eom, M. J. Kang, J. S. Choi, "Gender Differences of the Stress, Hopelessness,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ocial Support in Adolescents". *Journal of Human Studies*, Vol.22, pp. 5-30, 2008
- [12] M. A. Lee, S. H. Kim, J. H. Park, E. J. Sim, "Factors of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Social Relationships and Family". *Korean Journal of Population*, Vol.33, No.2, pp. 61-84, 2010.
- [13] S. C. Lee, "Socio-economic Factors of Elderly Suicide".

-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Vol.26, No.4, pp. 1-19, 2010.
- [14] H. W. Yang, "Social-economic Value Estimation of Cultural Welfare Policy and Policy Direction 2012".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12.
- [15] The Statistics Korea 2011, 2012.
- [16] J. Guetzkow,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Vol. 20, pp. 7-8. 2002.
- [17] H. M. Yang, "Research Report: Social Value of Culture - Implication of Happiness Economics on Cultural Policy".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7.
- [18] S. K. Hong, M. W. Lee, S. M. Lee, M. J. Ahn, "Searching for Facilities and Service Programs for the Establishment of Urban Park Ident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35, No.5, pp. 29-36, 2007.
- [19] H. J. Kim, E. J. Kang, J. H. Cho, "An Evaluation on Management Types by Characteristics of Urban Park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Vol.38, No.5, pp. 21-30, 2010.
- [20] S. Snow, M. D'Amico, D. Tanguay, "Therapeutic Theatre and Well-being". The Arts in Psychotherapy, Vol.30, pp. 73-82, 2003.
DOI: [http://dx.doi.org/10.1016/S0197-4556\(03\)00026-1](http://dx.doi.org/10.1016/S0197-4556(03)00026-1)
- [21] B. I. Lee, S. Y. Han, "A Study on the Influence Factors of Managerial Outputs of Municipal Arts Center in Korea's Local Governmen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2, pp. 183-205. 2011.
- [22] H. S. Jung, Y. S. Kim, K. W. Jeong, "Study on Museum Visitor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Reflecting on Visitor's Feedback". Korean Journal of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Vol.3, No.1, pp. 29-47. 2010
- [23] J. B. Kim, "A Study on Challenges in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and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Digital Library, Vol.63, pp. 3-46, 2011.
- [24] M. H. Jo, Y. B. Jeon, "A Study of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of Recreational Park".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44, No.5, pp. 631-641, 2005.
- [25] Y. H. No, "An Economic Analysis of Suicide: The Korean Panel Evidence". Korean Economic Review, Vol.54, No.3, pp. 177-200, 2006.
- [26] E. J. Kang, H. S. Shin, H. J. Park, M. W. Jo, N. Y. Kim, "A Valuation of Health Status Using EQ-5D".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Vol.12, No.2, pp. 19-43, 2006.
- [27] H. J. Lee, K. H. Lee, E. K. Kim, M. J. Kim, S. M. Hwang, "The Related Factors Influencing on Self-rated Health Level of Middle-aged Women".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Vol.17, No.3, pp. 290-301, 2012.
DOI: <http://dx.doi.org/10.5720/kjcn.2012.17.3.290>
- [28] J. N. Sohn,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Suicidal Ideation i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or Live with Fami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2, pp. 118-12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2.118>
- [29] S. H. Yoon, J. Y. Bea, S. W. Lee, S. E. Kim, "The Effects of Job Stress on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among Korean Men". Health and Social Science, Vol.19, pp. 31-50, 2006.
- [30] M. J. Lee, G. S. Kim.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Adolescents with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9, No.4, 349-375. 2013.
- [31] Y. L. Cho, I. S. Lee, "A Study on Participation Types and Effects of Art Activity Programs for Senior Citizens".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Vol.9, No.1, 23-49. 2013.

조 수 미(Soo-Mi Cho)

[준회원]



• 2013년 3월 ~ 현재 :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관심분야>
문화예술경영

신 형 덕(Hyung-Deok Shin)

[정회원]



• 2003년 8월 :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영학박사
• 2003년 8월 ~ 2006년 5월 : 조지
메이슨대학교 조교수
• 2006년 9월 ~ 현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전략경영, 국제경영, 문화예술경영